

알기 쉬운 베트남 이전가격 이야기

CTAC Vietnam

김일중 대표회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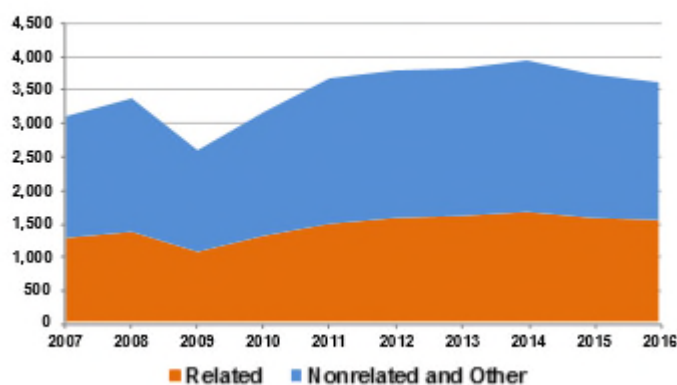
1 이전가격에 대한 이해

1 - 1 이전가격세제의 도입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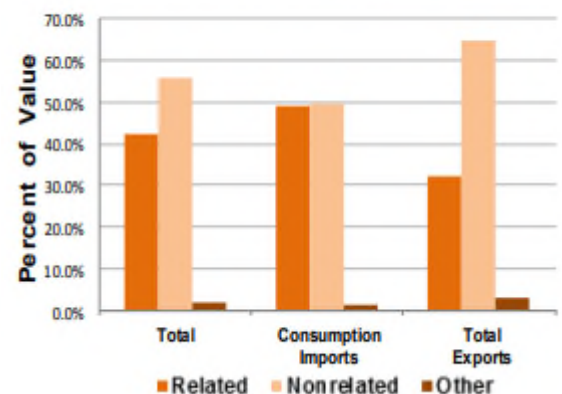
베트남에 수많은 한국 사람과 기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
워지며 제2의 차이나 드림을 꿈꾸는 기업과 개인들이 물밀듯이 호치민과 하노이로 오고
있습니다. 다낭에 출장갔을 때 한국사람이 관광객의 대부분이었다는 점에 깜짝 놀라기도
했고, 2017년에 처음법인을 설립하고 업무를 시작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뼈대만 올라가고
있던 호치민/하노이 시내의 건물들이 번듯이 세워 진 모습을 볼 때 불과 2년만에 몰라보
게 달라지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발전현황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모습은 마치 말로
만 듣던 30년 전 중국 상하이의 푸동 개발의 모습인 듯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사람과 기업이 베트남에 몰려들면서 당연히 한국과의 거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구과의 거래가 많아진다는 것은 베트남에 소재한 회사와 한국회사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가 늘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이런 국제적인 상거래는 생
각보다 대부분 지분관계가 있거나 소유주가 동일한 회사와 같이, 관계가 있는 형제회사
나 모자회사들끼리 사고 파는 거래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Party & Total Trade (billions of doll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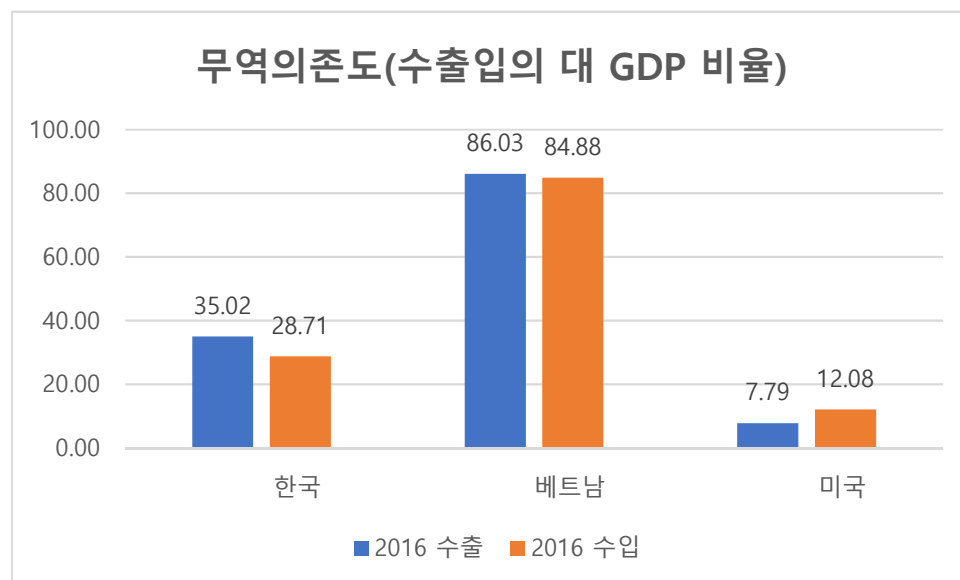


Related-Party Goods Trade - 2016



상기표¹는 미국의 경우 관계사와 비관계사 비중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관계사 거래는 21.6%, 총 거래금액은 16.7%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총거래에서 관계사의 거래비중은 2008년의 39.8%에서 2016년 42.4%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²는 미국, 한국, 베트남의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의존도를 나타냅니다.



상기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인 한국에 비해서도, 베트남의 무역의존도는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보다 훨씬 높은 우리나라나 베트남의 경우는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관계사 거래금액의 비중이 훨씬 크지 않을까요?

GDP에서 무역의존도가 매우 낮은 수준의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기간동안 관계사 거래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볼 때, 베트남의 경우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관계사 거래의 비중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¹ U.S. Goods and Trade Imports and Exports by Related Parties in 2016 (U.S. Consensus Bureau,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Commerce)

² 통계청 KOSIS, 출처: 관세청, 한국은행, IMF, The World Bank, 각국의 수출·수입액을 GDP로 나누어 계상, 자료: 관세청「<http://www.customs.go.kr>」 2018. 8, 한국은행「<http://ecos.bok.or.kr>」2018. 8, 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2018. 8, The World Bank「<http://www.worldbank.org>」2018. 7

이런 배경이 있기에 베트남 과세당국에서는 현재 관계사간의 거래를 규제하는 이전가격 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여기에 관리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 2 경제발전 상황에 따른 이전가격

이전가격이란 무엇일까요?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 이전가격(移轉價格, Transfer price)이란 관계기업(Related Party)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국제조세조정관련법률(국조법)이 제정되면서 이전가격과세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에서는 2008년도부터 개정 기업소득세법과 특별납세조정조정방안이 시행되면서 시작된 이전가격 과세의 활성화는 이후 베트남에서 2017년 4월 28일 재무부 Circular 20³이 발표되면서 베트남에서도 이전 가격문서화가 의무화가 되면서 많은 베트남 소재기업들이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행정업무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온 이전가격세제와 관련된 사안은 한국지엠이 부평공장 철수를 진행하

≡ '이투데이' 기업 | 경제 | IT/전자 | 모바일/통신 | 자동차 | 철강/조선 | 에너지/화학 | 항공/물류 | 유통 | 제약/바이오

뉴스 > 기업 > 자동차

한국GM '이전가격' 논란..세무조사 칼날 들이댈까

기사입력: 2018-02-12 09:47 | 수정: 2018-02-12 10:06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놓고 글로벌GM과 한국 정부간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선 '이전가격'에 주목하고 있다.

면서 노조가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 바로 이전가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노조 측에서는 GM관계사에 이자율이 5.3%에 달하는 점과, 국내완성차 업계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매출원가율을 가지고 있는 GM이 수입하는 부품이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삼은 부분입니다. 사실 이전가격문제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많은 외국투자기업들은 매우 주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전가격세

³ PROVIDING GUIDANCE ON IMPLEMENTATION OF CERTAIN ARTICLES OF THE GOVERNMENT'S DECREE NO.20/2017/ND-CP DATED FEBRUARY 24, 2017 ON TAX ADMINISTRATION FOR ENTERPRISES ENGAGED IN TRANSFER PRICING. NO41/2017/TT-BTC

제를 통해서 많은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해서 세무조사 등을 통한 제재를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가격과 관련해서는 외국투자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손꼽히는 요주의 대상국가 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도 2003년에 이미 과세금액으로만 32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이전가격조정으로 추징당한 바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할 때 세금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제조세 중의 하나가 바로 이전가격세제입니다. 그럼 정작 우리나라기업들은 왜 이런 중요한 이전가격을 잘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기업들의 해외진출 역사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는 비교적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세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주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이전가격세제를 도입하는 배경과 선진국에서의 이전가격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각각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세청, MS한국법인 수입가격 조작 탈세 '320억원 세금 추징'

2003.12.03 22:22



일반



가+

가-



국세청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3백2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MS가 미국 본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파는 가격보다 싸게 사오는 방법으로 매입 비용을 높게 계상, 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3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전가격 탈루에 대해 3백20억원의 추징금을 물린 외에 한국MS가 로열티 지출 과정에서 법인세(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3백8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실시간 인기기사

- 1 '저점대비 1억 오른' 거제 아파트, 바닥 찍었...
- 2 전소니 알고보니...바니걸스 고재숙 딸
- 3 [이진욱의 전자수첩] 중국발 풀더블론 참사...
- 4 [집코노미TV] "오피스텔 사지 마라..앞으로 ...
- 5 테헤란로, 천호대로 빌딩 높이 상향 조정 추...

1 - 2 - 1 개발도상국 측면에서의 이전가격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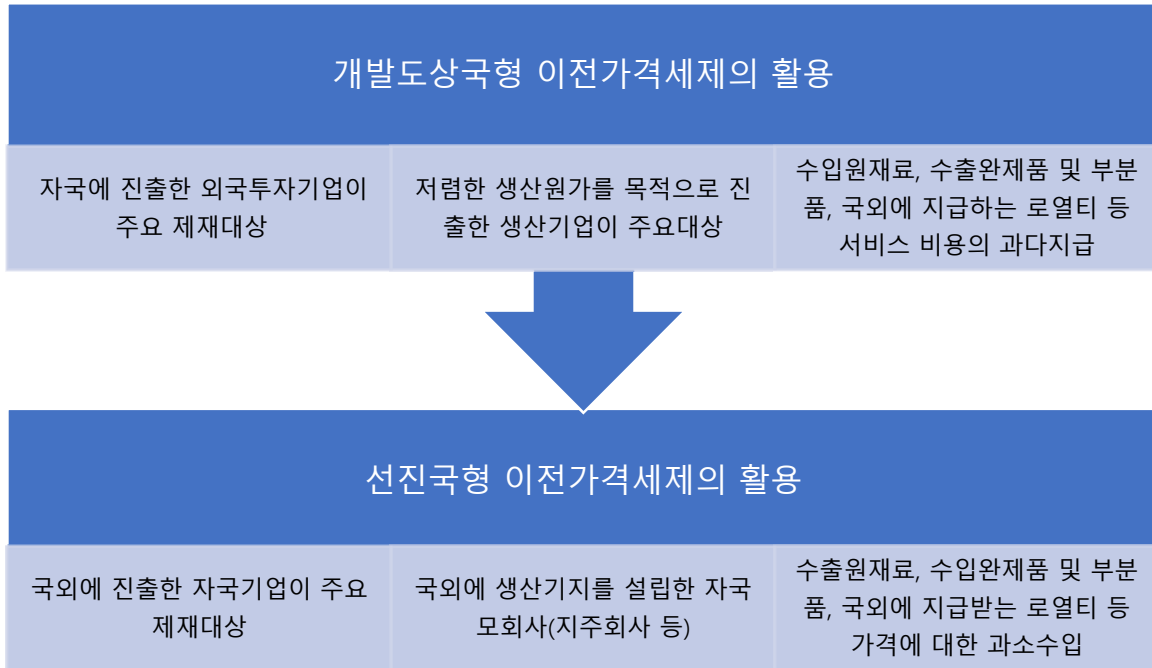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한국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이 거의 10년의 차이를 두고, 이전가격 세제를 도입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각국이 자국 경제에서 외국투자기업의 생산 경영이 매우 활발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에서 노키아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활발한 생산 활동을 하였습니다. 중국도 지금은 매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수많은 외국투자기업이 가장 많은 투자와 생산을 하였던 곳이었지요. 현재는 베트남으로 생산의 중심이 한참 바뀌는 상황이구요. 따라서, 이런 경제환경, 특히 외국자본이 활발히 투자되고 활동하는 국가 및 지역에존재하는 개발도상국의 과세당국에서 이전가격에 관심을 갖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발도상국의 이전가격 과세환경에서는 특징이 자국에 투자하여 생

산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관리의 수단으로 이전가격세제가 활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발도상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조사의 대상은 자국에서 생산경영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나가고 있는 자국진출 외국투자기업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이런 국가중의 하나로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보다는 한국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활발한 상황이어서 아래에 설명하는 자국기업을 조사하는 선진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조사의 행태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1-2-2 선진국 측면에서의 이전가격세제

그렇다면 반대로 미국이나 일본, 현재의 한국과 같이 생산활동 등에 외국의 기업이 투자하는 상황이 아니고, 주로 자국기업이 외국에 많이 진출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세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해외에서 제조나 판매를 많이 하는 선진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와는 달리 자국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제제하기 위하여 이전가격세제가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기업들이 마땅히 가져와야 할 소득을 해외에 이전하거나 가져오지 않는 것을 제제하기 위하여 이전가격세제가 활용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점 이런 측면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으로 가져와야 할 소득을 해외에 유보하여 두는 것을 제재하기 위하여 이전가격세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조사대상은 주로 해외에 진출한 자국기업이 주요 제제대상이며 자국에 유보하여야 하는 이익을 국외 관계회사에 부당하게 이전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전가격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매출액이나 총원가 등에 조정률을 곱하게 되어 있는 이전가격조정원리상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받게 되면 조정되는 금액이 매우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이나 해당 기업에서는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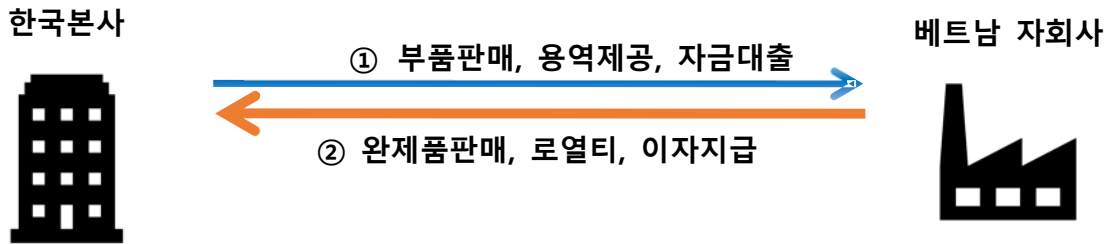


그럼, 이렇게 국제무역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이전가격세제의 기본 개념을 다음으로 살펴 보고자 합니다.

1 - 3 이전가격과 그 성격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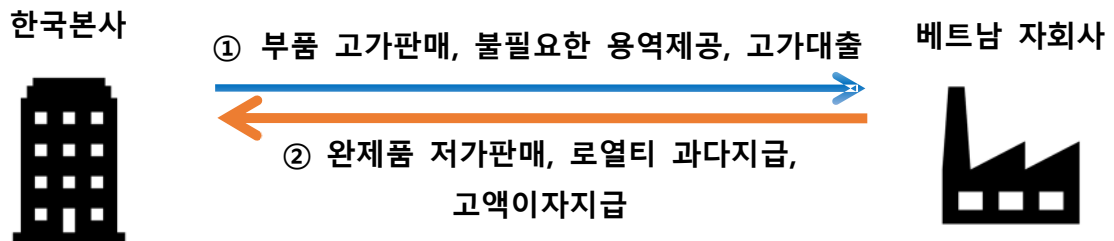
이전가격 세제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으면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은 수출입에 국내총생산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반면에 국내소비시장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베트남의 국내총생산의 구성요소를 볼 때, 베트남의 저렴한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보고 많은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자금을 투입하여 자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베트남 내수판매를 위한 목적이 라기 보다는 수출을 위한 생산 기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이전가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회사가 베트남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가정을 하면 아래와 같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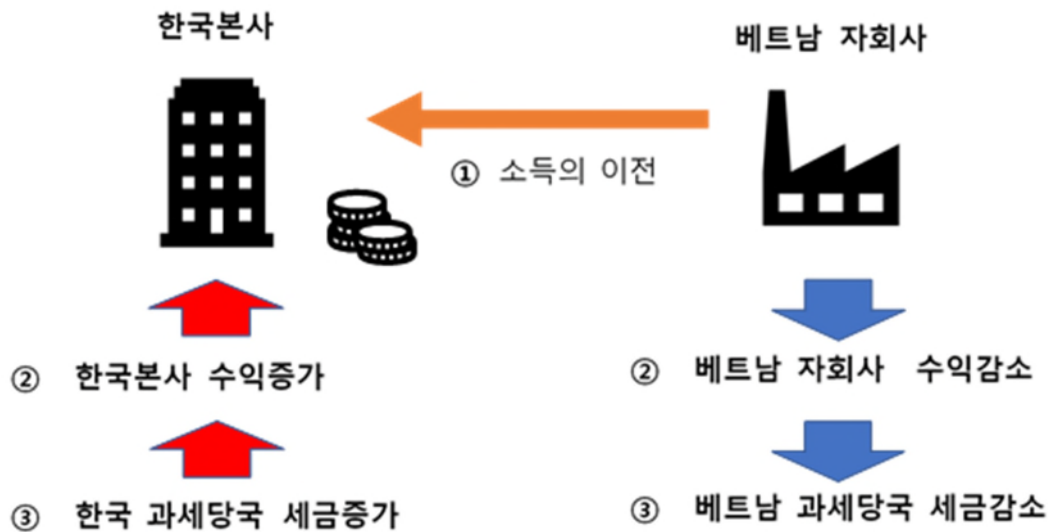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떠오르는 것은 한국본사와 베트남 자회사는 관계회사이기 때문에 상기에 언급된 많은 거래에 있어서 적절한 가격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국본사에서 이익을 베트남보다 한국에 유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한국과 베트남은 법인세율(Corporate Income Tax)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에 따라서 각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본사가 베트남 자회사에 이익을 남기지 않고 모두 한국으로 이전거래를 통해서 가져오기로 결정했다고 봅시다. 이 경우에 상기 거래금액은 원래 가져와야 할 금액보다 비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베트남 자회사의 이익이 한국본사로 이전(Transfer)되며, 그 결과 각국에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과세당국은 원래 받아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받게되고, 베트남 과세당국은 원래 받아야할 세금보다 더 적은 법인세를 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므로, 수출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전가격세제가 중요한 것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베트남 경제체제는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것이며, 더욱이 당해 수출입의 생산주체가 외국투자기업으로 관계사간의 이전가격거래가 대부분이므로 법인세 체계에서는 이전가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전가격은 당해 이전가격거래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조세주권을 지키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각국이 자국 과세권을 가지고 서로 격돌하는 것이 이전가격과세의 기본적인 배경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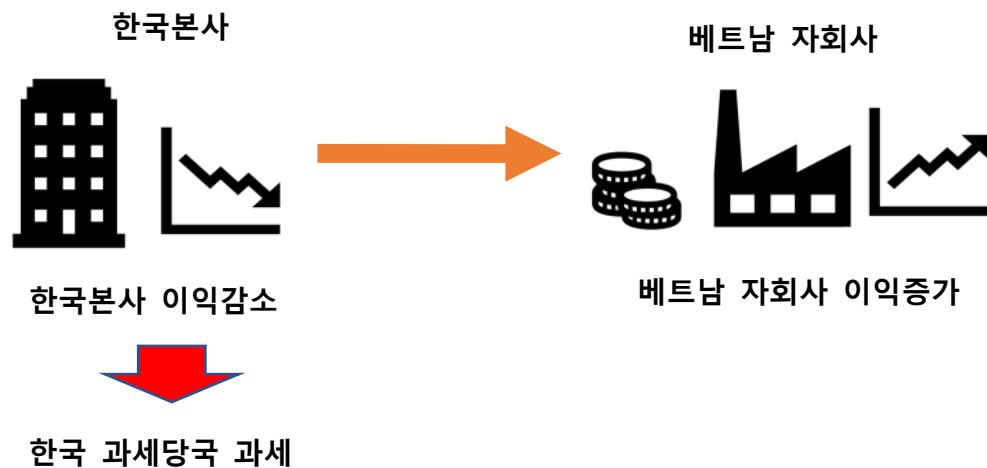


1 - 4 과세권의 충돌로 인하여 살펴본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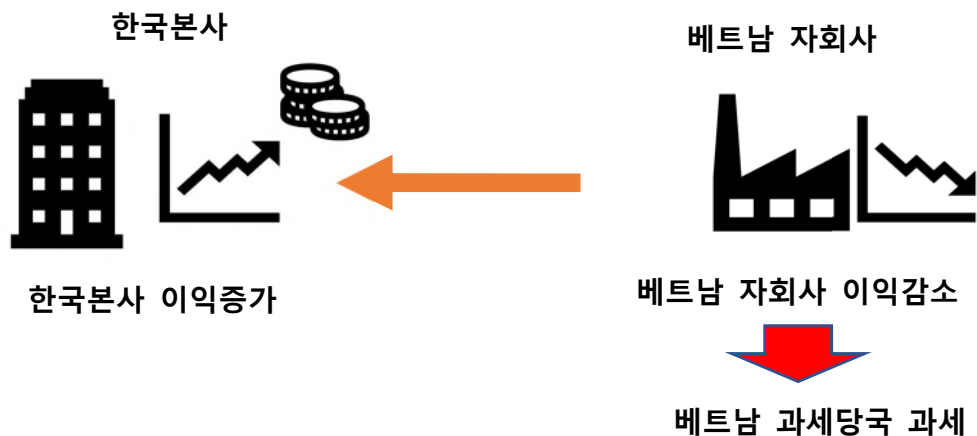
상기와 같이 이전가격이 거래상대방 국가 간의 과세권의 충돌로 이해한다면 이전가격의 중요한 특성인 이중과세의 발생과 양 국가 간의 이해관계 상충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이전가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히 어느 한 국가의 입장에서만 이전가격문제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베트남에 소재한 자회사의 이전가격 위험회피를 위해서 자회사의 이익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이전가격 정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베트남 자회사의 이전가격 과세위험은 회피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국본사 입장에서는 과세위험에 노출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예1: 베트남 자회사 이익이 높은 경우)



(예2: 한국본사 이익이 높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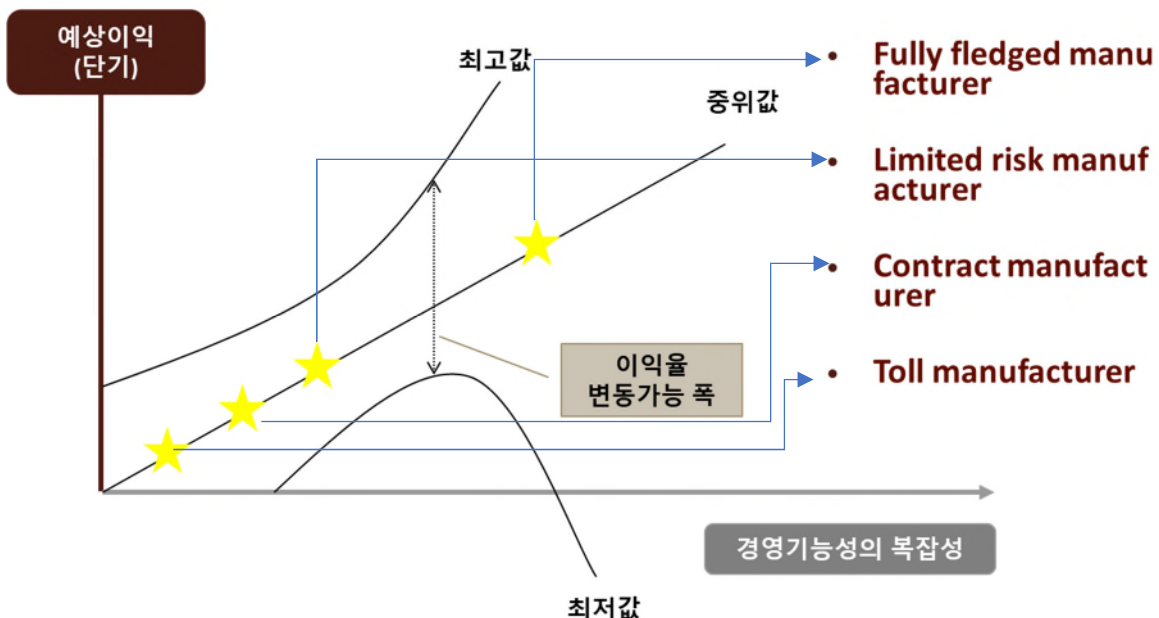


상기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관련이 되어 있는 양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적정 이익수준(정상가격범위)를 유지하면서 균형있는 수준으로 이전가격 거래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국본사를 생각해서 베트남 자회사의 이익이 부적절하게 감소하거나 베트남 자회사의 세무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과다하게 이익이 베트남 자회사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2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기본구성

2-1 회사가 수행하는 기능과 위험의 결정

이전가격의 기본성격을 국가간의 과세권의 충돌로 이해했다면 다음으로는 이렇게 발생한 이전가격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국가 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간의 과세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수행하는 기능과 위험에 상응해서 적절한 수준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이전가격세제에서 회사가 하는 기능과 위험에 따라서 향후에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익과 위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그림을 보면, 경영기능이 단순한 임가공업자등 (Contract Manufacturer, Toll Manufacturer)의 경우에는 예상이익이 낮은 대신 이익률의 변동가능폭이 제한적이며, 일반제조업자 (Fully fledged manufacturer)나 한정된 기능위험의 제조업자(Limited Risk Manufacturer)의 경우에는 예상이익의 수준이 높은 대신 이익률 변동가능폭이 매우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세제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이익률의 결정은 해당 거래에 임하는 회사의 기능과 위험 (경영기능성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당해 기능과 위험에 상응하는 수준의 예상이익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 많고 위험 많이 부담하는 회사가 돈도 많이 벌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기업은 실제 버는 돈은 많이 벌 수도 있고 반대

로 손해를 낼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 2 수행하는 기능과 위험에 따른 예상이익의 결정

상기와 같이 회사가 수행하는 기능과 위험을 결정했다면, 당해 기능/위험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예상이익(정상가격이익률의 범위, arm's length range)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구체적인 예상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이전가격세제에서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방법을 정하고, 다시 각 방법에 적합한 이익률 지수를 적용하여 당해 정상가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의 결정방법과 성격을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적절한 이전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이전가격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구분	방법	접근방법별 구분	검토대상별 구분
전통적 방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UP)	가격접근법	일방검토방 법
	재판매가격방법 (RPM)	수익률접근 법	
	원가가산방법 (CPLM)		
기타의 방법	거래순이익율방법 (TNMM) 비교가능이익분할방법 (CPM)		쌍방검토방 법
	이익분할방법 (P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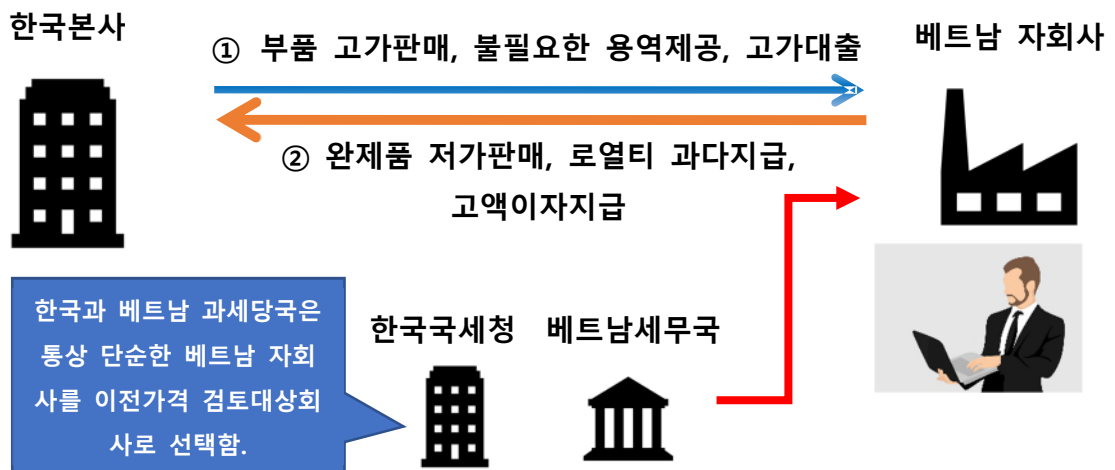
2 - 3 거래순이익률방법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이해

이전가격세제에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상가격여부의 결정은 앞서 보여드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상적으로는 5가지 종류의 방법을 검토하여 회사에 가장 적합한 이전가격방법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검토대상 거래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은 이전가격 거래별로 이미 설명한 회사의 기능과 위험을 살펴본 후에 해당회사가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를 결정하고 (예를들면 단순임가공업자), 그에 합당한 기능과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가 달성하고 있는 이익률과 비교하여, 적절한 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가격거래가 정상가격으로 거래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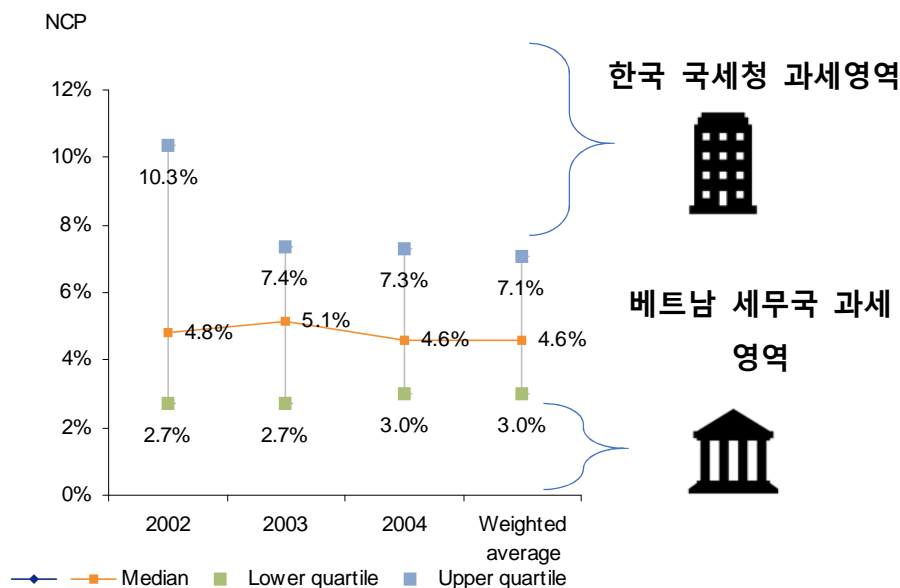
있다고 판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비정상가격)에는 과세당국이 증액조정을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A 회사는 단순임가공업을 수행하고 있는 베트남 내의 자회사이고 당해 자회사가 한국에 있는 모회사인 B 가 완제품 판매거래와 원재료 매입거래를 수행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경우에 A 회사에 대해서는 베트남 세무당국이 B 회사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세청이 이전가격세제를 활용하여 당해 베트남 자회사와 한국의 모회사가 정상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거래순이익률 방법 하에서 베트남 세무당국과 한국의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기능과 위험이 더 단순한 회사를 검토대상회사로 선정하여 이전가격의 정상가격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트남내 단순임가공업을 수행하는 자회사 A 의 이익을 검토함으로써 베트남과 한국에서 동시에 이전가격이 정상수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은 공신력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문회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동종업계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을 선별하여 검토대상 회사와 이익율 수준을 비교하게 됩니다. 가령 당해 데이터베이스 검색작업 (일반적으로 Benchmarking Study 라고 부름)을 마친 후에 동종업계의 유사한 기능과 위험을 가진 기업의 정상가격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NCP 는 총원가가산율(Net Cost Plus)를 의미하고, 세로막대는 각각 해당연도의 상위사분위값과 하위사분위값, 중위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개년 가중평균값을 보면 당해 비교가능회사들의 정상가격범위는 3.0%~7.1%(중위값 4.6%) 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해 결론에 의하면 검토대상회사인 A 회사가 이전가격세제에서 정상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림에서 회사의 2018년도 총원가가산율이 1%에 불과하다면 그 의미는 베트남회사의 이익률이 동종업계의 비교가능회사들의 정상가격범위 하한값인 3.0% 보다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낮은 수준의 이익률은 회사가 기타의 다른 합리적인 이유⁴가 베트남 과세당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전가격거래로 소득을 한국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해서 베트남 자회사인 A 가 베트남에서 법인세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베트남 자회사인 A 가 앞서 언급된 정상가격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10%의 총원가가산율을 2018년도에 달성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앞선 예와 반대로 한국의 국세청입장에서 모회사인 B 가 이익을 자회사인 A 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서 한국모회사에 대한 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전가격세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 과세당국이 자국에 진출한 외국투자법인에 대하여 이익을 이전한 것으로 과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과세당국도 자국에 소재한 모법인이 해외에 진출한 자회사로 소득을

⁴ 사업개시손실(Start up loss)이나 시장침투정책(Market Penetration strategy)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영상의 합리적인 사유들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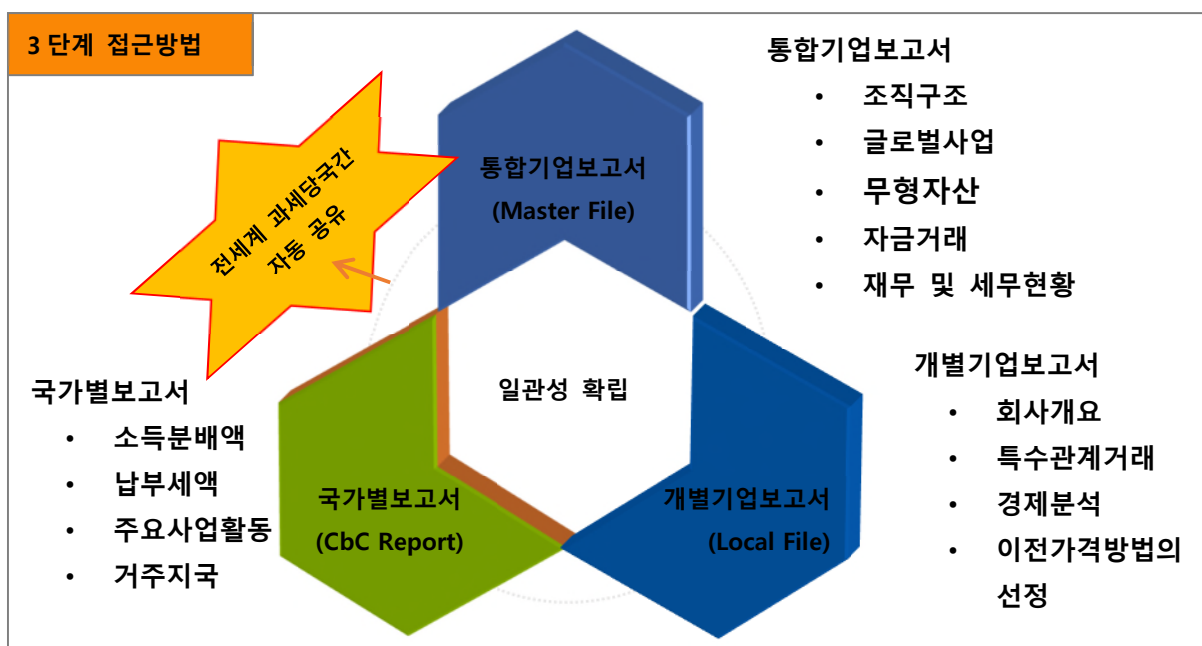
현재의 한국내 경영환경 하에서는 많은 한국기업들이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내에는 시제품 생산과 연구개발 등 핵심인력만을 남기고 나머지 제조 및 판매는 해외자회사로 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입니다.

2 - 4 이전가격 문서화와 중요성

신문지상에 주의를 가지고 살펴보면, 각 국가에서 “구글세”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을 위해서 BEPS 보고서 등을 통해 국세청이 의심기업을 감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다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경제 이전가격 조작한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올해부터 세진다
레이저세포는 만들수 있는 곳? 유스타일나인의 원 유스타일나인의 원	정부, 구글세 도입 관련 입장 발표 이전가격세제 고령사업장 회피방지 강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부터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다국적 IT(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하지만 매출의 일정액을 과세하는 일명 디지털세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특수관계법인 간 이전가격 거래가 독립기업 간 거래와 비교해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과세당국이 판단하면 정상가격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거래를 부인하거나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등 이전가격 제제의 실효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전가격은 관계 법인 사이에 원재료·제품 등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다국적 IT기업은 조세회피처에 세운 계열사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과세를 회피하는데,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전가격문서화 내용은 지난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는데 지난 2015년 10월 초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과 관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ction plan 최종보고서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채택됐고,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되어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국가 또는 조세협정상의 허점 등을 이용해 여러 나라에 법인을 세워놓고 자금과 거래를 돌려가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관행을 국제적으로 공조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해 규정에 의하면, 기존에 1개의 보고서로 구성되었던 이전가격보고서를 국가별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3가지 보고서로 세분화하고, 납세자가 이들 보고서를 미리 작성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인데 개별기업보고서는 자국에 소재한 검토대상기업의 경제분석을 포함하여, 당해 기업이 이전가격세제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가격 보고서를 강제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위와 같이 이전가격작성을 더 세분화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과세당국은 납세자로 하여금 더 적극적인 이전가격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에 더 손쉬운 조정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당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연 무엇이 납세자 입장에서 유익이 있으며 중요한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 5 이전가격보고서 작성과정과 중요성

이전가격보고서의 성격은 회사의이전가격 문제를 검토해서 사전에 이전가격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전가격보고서는 납세자가 이전가격과 관련된 보고서를 사전에 구비하여 이전가격관련 문제가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거나 이미 발생한 이전가격문제의 경우에는 스스로 이전가격조정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별기업보고서를 중심으로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 이전가격보고서의 작성 과정과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2 - 5 - 1 이전가격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의 작성과정

이전가격보고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적정한 기능/위험 분석을 통해서 회사가 합리적인 이전가격방법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도달하여야 하는 정상가격범위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 STEP 1 : 자료수집 및 인터뷰

이 단계에서는 기업과 그 제휴사가 가진 기능 및 위험, 기업과 제휴사가 이용한 이점 등 거래사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모든 관련정보수집을 위해 운영팀, 생산부서, 다국적 기업 및 제휴사와의 인터뷰가 이루어집니다.

- STEP 2: 산업 및 기능위험 분석

기업의 산업상황과 시장 경쟁 환경에 따른 산업 및 기능적 분석 실시및 실행된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하여 회사의 이전가격분석상 제조, 도매, 서비스 회사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 STEP 3: 이전가격방법 및 수익성지수 선택

검토된 각각의 특수관계자 에 가장 적합한 이전 가격법과 수익성 지표(PLI)를 적용합니다.

- STEP 4: 경제분석

선택된 비교물의 수익을 확립하기 위한 경제 분석 실시 및 사분위수를 이용하여 정상가격범위를 얻기 위한 검증된 회사들과 비교합니다.

- STEP 5: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및 결론

기업의 구조조직, 사업운영 소개, 특수관계자 안내, 가능한 데이터 분석, 이전가격방법 선택과 실행 등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루는 포괄적인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며 앞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회사의 관계사간 거래가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정상적인 이전가격보고서는 상기의 작성과정과 내용이 반드시 적절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가격이 최근에 도입된 베트남에서의 이전가격보고서를 보면 여러가지 잘 못 작성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작성하는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문제점	설명
1	구분손익 작성오류(관계사, 비관계사거래 손익구분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사/비관계사 구분오류 • 비관계사거래 매출, 원가, 비용을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 함.
2	검토대상회사의 선정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 검토방법을 적용할 시, 재무지표 (원가가산율, 총이익율 혹은 순이익율)를 검토해야 하는 거래당사자를 선택하여야 함.
3	기능위험 정의 누락 및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위험 분석 없음. • 분석된 기능위험이 이전가격에서 수행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임. • 기능 및 위험과 관련한 수행기능의 복잡성에 따라 기대 수익률이 다르므로 검토대상회사에 대한 성격정의가 필요함. • 검토대상회사의 기능위험 정의 오류
4	경제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분석을 진행하지 않음, 정상가격범위가 없음. • 비교가능회사 선정과정이 불합리함. • 신뢰성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음. • 경제분석 계산과정이 잘못됨. • 경제분석 결과 검토대상회사가 사분위값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손실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였지만 결과값이 없으며, 당해 조정에 대한 원인규명 내용이 없음.

5	이전가격방법 선정 및 수익성지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가격방법과 선정된 수익성지수가 서로 부합하지 않음. • 수익성지수의 계산이 잘못됨. • 영업자산조정이 누락됨.
6	보고서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가격보고서의 결론이 잘못되었으며,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과세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보고서 결론이 없음. • 경제분석 및 기능분석의 내용과 보고서 결론이 부합하지 않음.

상기 내용 중 4번, 5번, 6번 항목의 오류는 치명적인 오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들을 그대로 포함하여 작성된 이전가격 보고서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세무문제 이외에 여러가지 경영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많고, 수수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하여도, 기본적인 내용마저 오류 투성이인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당해 이전가격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이전가격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과세당국과의 마찰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가격조사 등 과세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납세자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다른 문제로 이전가격 과세의 경험이 많지 않은 베트남 기업들의 경우 많은 경우에 이전가격보고서의 준비가 없거나,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격하거나 경험이 없는 대리인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에만 보고서를 준비하고 나서

과세당국과의 관계에만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 뿐만 아니라 한국 측면에서의 이전가격 과세에 활용되는 보고서의 중요성과 과세되는 과세금액의 크기를 감안할 때 매우 근시안적인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베트남 과세당국은 1.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이전가격보고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중위값을 제시하여 강제 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문서화 준비와 그 결과에 대한 대비를 꼭 사전에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개요와 세무조사 현황분석

베트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총생산의 1.8배에 달하는 수출입규모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출입이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강화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발표된 베트남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 - 1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개요

베트남의 신 이전가격 세제의 신고의무에 대한 부분만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베트남: Decree No. 20/2017/ND-CP(2017.2.24)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하여야 함. • 매출액이 5백억동(약 25억) 이하, 특수관계자 거래가 3백억동((약 15억) 이하인 경우 • 단순 기능 업체로 매출액이 2천억동 이하인 업체 (도매 5%, 단순제조 10%, 단순임가공 15% 이상인 경우 제외) • 국가별보고서 – 외국계 회사 : 본국의 모회사가 제출 대상일 경우 제출 대상
적용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회계연도 부터 적용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거래명세서 +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 국가별보고서
신고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신고서 제출 전까지 작성해서 준비할 것. • 세무조사시 과세당국 요청시 15일 이내에 제출 할 것.
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당국이 인정과세를 할 수 있으며, 비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하여 세액을 산정함.

한국의 이전가격세제와 비교하여 볼 때,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작성의무자를 해당 과세 연도 매출액 1,000억원 초과 및 국외특수관계 거래규모 500억원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에 비하여, 베트남 과세당국이 문서화를 요구하는 기업의 규모는 현저히 작은 규모이며, 이를 통해 볼 때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강화하려는 베트남 과세당국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화의 시기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준비하도록 하고 있는 한국 규정과 비교하여 베트남 이전가격규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서화 작성 기한이 매우 촉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해 신규정의 주요 변동사항을 구규정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이전가격 규정 (Circular 66)	신 이전가격 규정 (Decree 20)
지분보유	20% 이 상 지분을 직, 간접으로 보유	25% 이 상 지분을 직, 간접으로 보유
사업관계	50% 를 초 과 하 여 한 거 래 처 로 부 터 매 입 또는 매출하고 있는 경	모두 삭제됨
차입관계	타회사 자본금의 20%를 초과하여 지급 보증하고, 장단기 차입금의 50%를 초과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	타회사 자본금의 25%를 초과하여 지급 보증하고, 장단기 차입금의 50%를 초과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
실질지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이 타방의 이사회 임원 50% 초과 지명, 그 임원이 타방의 재무정책, 사업활동과 관련한 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 일방이 타방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관리나 의사결정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 당해 내용에 따라 세무 공무원의 재량권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이외에도 유의하여야 할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1. 비교대상업체의 경우 내부비교가능거래를 우선적용하고, 내부비교가능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비교가능회사를 사용하며, 당해 국내비교가능회사가 없는 경우에 국외비교가능회사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대상회사의 수는 중요한 차이를 조정할 수 없는 경우 5개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된 3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서 이익률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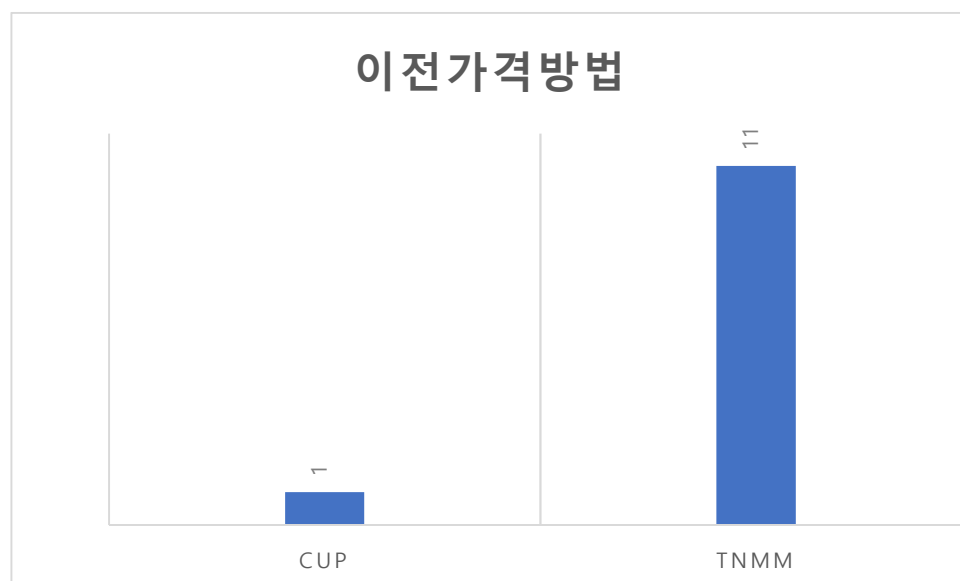
상기와 같은 베트남의 신 이전가격규정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OECD 에서 발표하는 이전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전가격보고서의 작성기한이 매우 단기간이어서 행정적인 부담이 크고, 작성대상기업의 규모가 소규모로서 그 대상이 매우 광범위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2 세무조사 사례별 통계분석

아래는 2018년도에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 지역에 진행된 몇가지 이전가격조사 사례를 정리하여 현재 베트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전가격 세무조사 현황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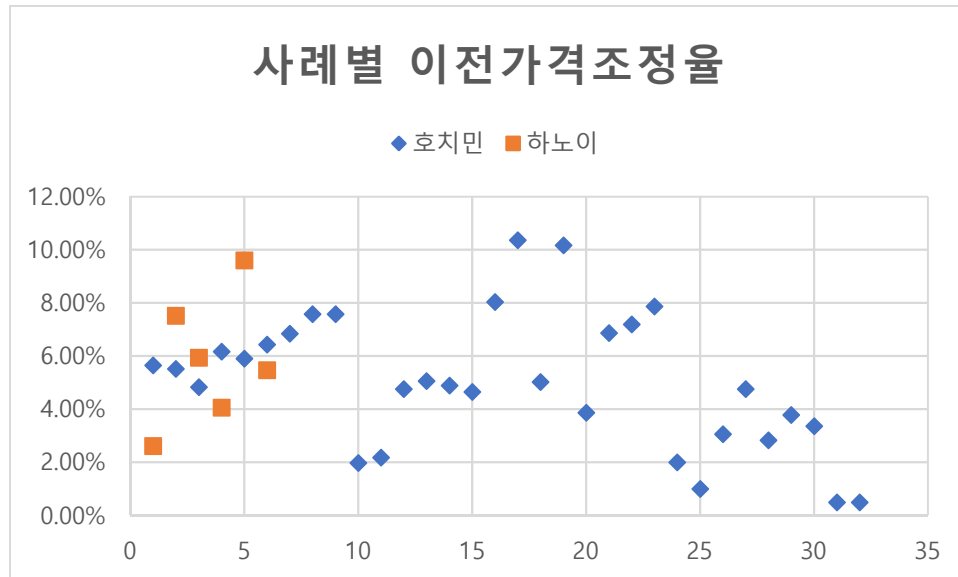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안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진행된 총 12건의 이전가격세무조사 사안별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이전가격방법을 적용방법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가격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압도적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1건이 부분적으로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Method)이 적용되었으나 거래순이익률방법이 적용불가능한 상황에 적용된 내용이었으며, 적용방법이 적정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향후에는 적용사례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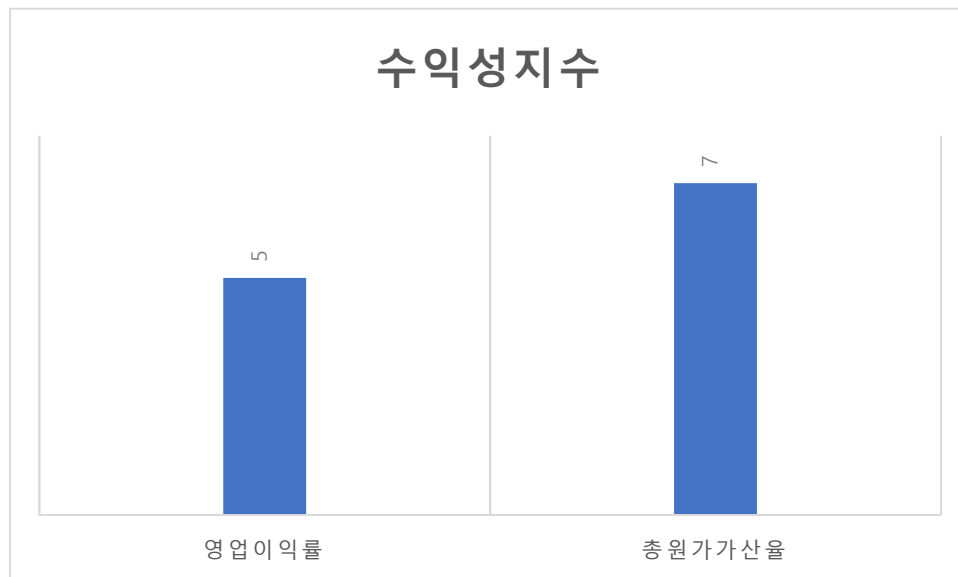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과세당국에 의해서 적용된 정상가격범위 사례입니다. 하노이와 호치민 사례를 연도별 적용을 무시하고 제시된 정상가격범위(상위사분위, 중위, 하위사분위)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례별 편차가 크고 매우 높은 수준의 이익률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와 예외적을 낮은 이익률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은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않고 사례별 산업이 다르며, 적용된 연도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참고목적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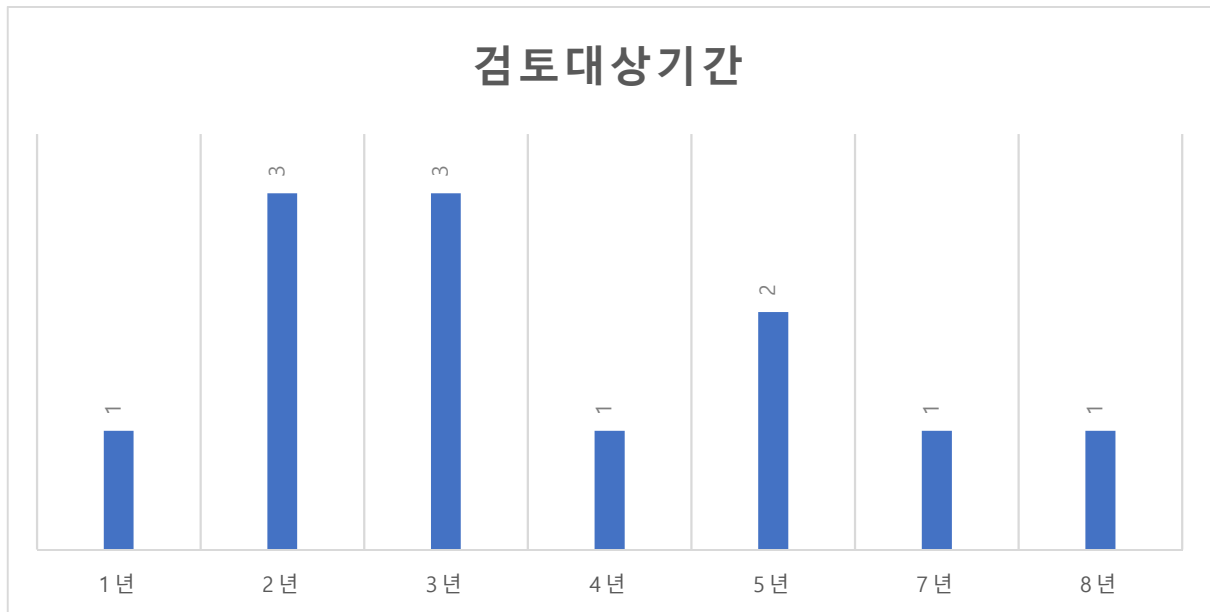
상기 사례별 이전가격조정율을 보면 베트남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정율은 통상적으로 대부분 4% 이상의 영업이익률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용된 수익성 지수를 경우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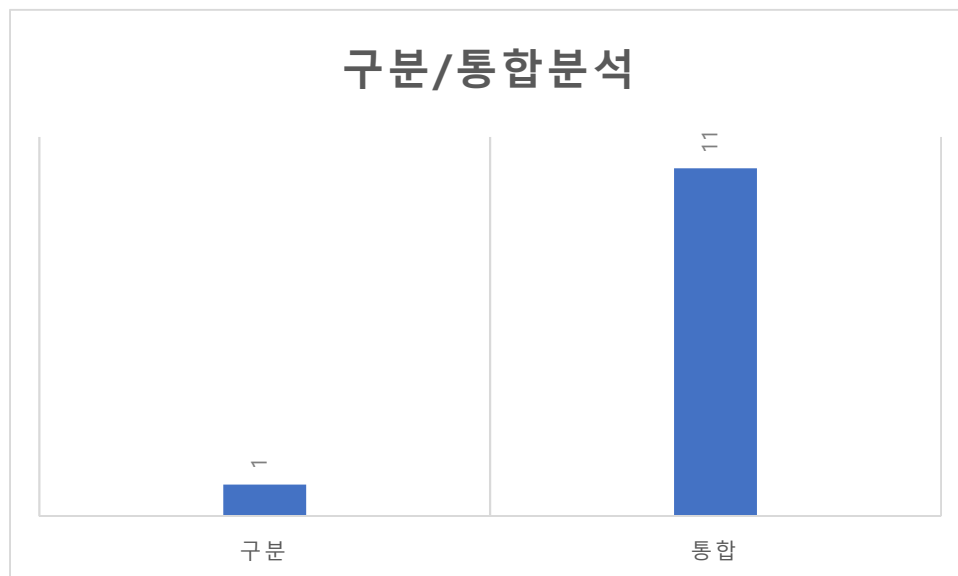
상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보편적인 영업이익률 지표와 총원가가산율 지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베트남 과세당국이 영업자산수익률, Berry ratio, ROCE 등 다양한 수익성지수보다는 가장 이해하기 간편한 수익성지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대상 검토대상기간에 대한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조사 대상기간이 가장 많은 경우는 2년에서 3년이었으며, 최장기간은 8년이었고, 최단기간은 1년 이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의 경우에 이전가격 조사는 일반적으로는 3년 단위 내외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가격 과세를 할 때 또한가지 중요한 과세방법여부는 거래별 구분과 통합여부입니다. 이전가격과세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하에서는 거래별 구분이 원칙이지만 상호밀접하게 관련된 거래로 구분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이전가격 과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은 거래를 통합하여 과세를 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간편하게 과세거래를 계산할

수 있고, 과세금액이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접근방법입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과세당국의 경우에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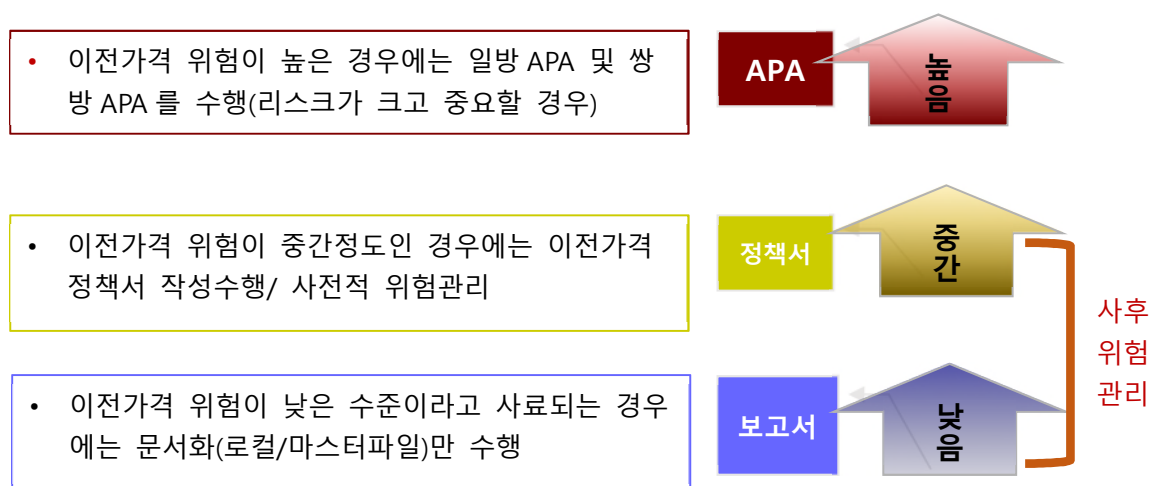
3-3 세무조사를 통해본 베트남 이전가격 과세위험의 관리

베트남은 한국이나 중국보다 늦게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기업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지금의 혼란기를 지나면 한동안은 베트남에서 이전가격과세가 매우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과세당국도 일정기간동안 이전가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나면 자신감 있게 당해 제도를 통한 과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당국과의 관계를 통한 이전가격을 포함 세무위험의 관리는 오랜기간 당해 업무에 한국이나 중국 등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오래 갈수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작성된 이전가격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보고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위험 분석이나 경제분석, 심지어 수익성 지수의 계산조차 틀린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실보고서의 작성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위해 귀중한 투입된 시간과 비용이 헛되게 낭비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절한 위험관리와 정확한 문서화를 진행하고 나서 과세당국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가격의 사전적 위험관리는 통상 위험수준에 따라서 아래의 세가지 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상기와 같은 위험의 단계에 따라 사전적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이전가격 정책서와 문서화 만을 수행할 때는 세무조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가격의 세무위험의 관리는 사전적으로 한국본사와의 원활한 논의를 통한 사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이익률을 설정하고 한국본사와 베트남 자회사의 기능/위험에 적합한 영업이익률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세법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문서화(개별 및 통합기업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구비해 두어야 하며, 세무조사가 개시되었을 때는 베트남 자회사 뿐만이 아니라 본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 합리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대응전략을 가지고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전략

- ★A. 이전가격 사전관리시스템 구축 (이전가격 정책 및 지침서 작성)
- ★B. 정확한 이전가격문서화 준비(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
- ★C. 세무조사 대응시 한국본사와 베트남 자회사의 전사적인 적극적인 협상과 협력, 과세당국에 대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D. 기업내 일상적 관리능력의 향상
 - ✓ 대부분의 회사가 관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지직원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
 - ✓ 많은 경우 현지직원은 세법규정 등을 확인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처리하던 방식을 답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 베트남세무는 계속 변화하므로 반드시 부서장 및 경영진이 교육 등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현지 동향을 점검하고 학습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개발도상국 세무국의 경우 이전가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매우 강하므로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정확한 이전가격문서화는 반드시 같이 병행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이전가격 가이드 라인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수출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점차 합리적인 과세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차이나로서 많은 한국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많은 한국기업들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세무위험 관리를 통해 어려운 작금의 경제상황을 이겨내고 더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업들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CTAC 김일중 대표회계사 ilchung.kim@ctacgroup.com)